

새해 인간상록수 추대 사업 추진

포천시상록회 2008년 송년의 밤 개최

(사)한국상록회 경기도 포천시상록회(회장 최호열)는 12월18일 오후6시 늘봄컨벤션웨딩홀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최호열 회장은 "올해는 포천시상록회를 창립하고 회원들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친목도모를 통해 2009년 사업을 계획하고 새해에는 인간상록수 추대 등 상록회 고유의 사업 추진을 통해 참 봉사를 실천하자"고 밝혔다.

이날 송년의 밤은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들이 각자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와 다짐을 밝혀 서로

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육자 회원이 2009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축하의 박수를 보냈으며 이계순 회원이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감사로 선출됐으며 이은미 재무이사가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총무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앞서 최호열 회장은 창립 유공자 김영복 사무국장과 이은미 재무이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준학 기자 bisoccer@naver.com



(사)한국상록회 경기도 포천시상록회는 12월18일 오후6시 늘봄컨벤션웨딩홀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임관영 2008 포천문학상 수상

포천문협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는 12월16일 포천유림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종희)는 12월16일 오후6시 포천유림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08년 결산내역 및 2009년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운운숙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어려운 살림에서도 빈틈없이 알뜰하게 협회를 이끌어 가느라 수고한 사무국장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며 2009년에는 협회가 더 잘 운영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최대의무인 회비를 내는 일에 적극 협조하자"고 밝혔다.

이날 한 해 동안 문인협회 발전과 문학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큰 회원들 선정해 시상하는 포천문학상 시상식은 1대 및 2대 회장으로 포천 문협 발전에 공이 큰 임관영 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를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패 수여식도 가졌다. 이날 공로패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수동(그린자동차 학원 회장) >이한철(정우식품 대표) >임운영(도농회 회장) >최대환(최대환미술협회 회장) >박재교(포천예술인동우회 회장)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소라氏 대학부 금상 수상

이해조문학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이해조문학제(회장 박정근)는 12월10일 오후2시 제2회 이해조문학제 독후감공모전 시상식을 대진대학교 대학원 209호에서 개최했다. 박정근 이해조문학제 회장은 "4년 전부터 포천이 낳은 애국계몽기 선각자인 이해조 남의 뜻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연구와 세미나, 학회 발표회를 통한 연구논문집을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독후감공모전을 실시해왔다"고 밝히고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 좋은 소설을 창작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심사를 맡은 공명수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는 "100여편의 작품에 대해 내용, 짜임새, 관점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내용은 즐거워, 동시대적 의미, 현대적 의미를 시준으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2회 이해조문학제 독후감 대회 수상

이해조문학제는 12월10일 제2회 이해조문학제 독후감공모전 시상식을 대진대학교 대학원 209호에서 개최했다.

자 명단과 작품명은 다음과 같다. >일반부 >은상 변효정(자유중에서 "거리정치"의 씨앗을 엮는다) >은상 백상용(자유중을 읽고) >동상 박종만(교육운동가 이해조 선배님께) >동상 김미애(아름다운 수다) >대학부 >금상 김소라(세계를 울리는 자유중-이해조 자유중) >은상 정지윤(구미점) >은상 조재규(법추지 않는 자유중) >동상 김봉중(주관적인 가치관과 객관적인 가치관의 그 중점) >이기우(自由鐘) >동상 서영준(이해조 구미점-구미점, 사회악을 쫓아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신음동 소재 포천감리교회는 12월11일 연탄 3천장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당부했다.

포천시 신음동 소재 포천감리교회(담임 목사 노수우)는 12월11일 연탄 3천장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당부했다.

이날 트럭 2대에 나눠 실은 연탄을 포천감리교회 감정에 관사를 비롯해 교인들이 직접 독거노인 등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달했다.

포천감리교회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동안은 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연탄 3천장을 15명에게 각 200장씩 전달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탄 제조원가 700원, 구입가격 500원, 150만원 상당) >홍승희 >윤영미 >박연자 >박종기 >이진숙 >김광수 >최영호 >최복규 >김정진 >신종현 >최소 >박용직 >손이용 >권명순 >조돈중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기사제보 031)542-1507

추천!...한마당 이야기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

2차 대전 중 독일군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독일군에게 있는 인간의 양심이었다. 그 양심을 없애려고 독일 군부는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한 개만 만들었다.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은 아무 데나 배설했고, 배설물과 어우러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 독일군의 양심은 점점 사라져갔다. 결국 인간다움이 없어진 유대인이 짐승으로 보이면서 살인은 쉬워졌다.

수용소 생존자들은 대개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매일 4시 반이 되면 수용소에서 한 사람마다 따뜻한 물 한 컵씩을 제공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받아 조금 먹고 나머지를

물을 아껴 세수했다. 그리고 최후의 남은 물을 조금 사용해 옷 조각으로 이빨을 닦고 수용소에서 발견한 유리조각으로 깨끗하게 면도를 했다. 그때 내일 죽어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겠다는 인간 존재의 몸부림이 있었다.

독일군에게 가장 무서운 항거는 그런 인간다움의 몸부림이었다. '짐승 죽이기'는 쉽지만 '인간 죽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독일군은 유대인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이 되기를 원했지만 끝없이 인간다움을 위해 몸부림친 사람들은 죽더라도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죽기를 원했다.

인간다움의 선언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길이 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독일군은 처형자들을 끌었다. 그때 잘 면도된 얼굴이 보였다. 여전히 더럽지만 분명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들은 처형자로 선택되지 않았다. 무자비한 나치도 짐승은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인간은 쉽게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남이 나를 불태워주지 않는다. 단점이 많아도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잃지 말라.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그 단점이 장점으로 변한다. (문의 011-342-5834)

웃음 넘치는 세상 만들기 ⑦

복지관 3번째 이야기

겨울비 촉촉이 내리는 날에 몇 번의 만남은 아니지만 친근하게 다가선 생수의 집 장애우 친구들과 모현센터의 어르신들과 이별의 시간이 기다리는 날이다.

비록 가진 것은 나의 탓이 아닌 장애로 지내고 있지만 장애우들의 마음은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다가선 것이다.

어색하다는 생각도 없이 웃다보니 예전에 알았던 친구들처럼 다정스러워 보인다.

그냥 휘젓듯 다가서는 손보다 양도 웃고 싶어도 마음뿐이라는 마음도 슬프지 나누며 서로 대화하는 한바탕 마다 그들의 정겨움이 배어 있다.

주름진 사이로 하얗게 웃어 주던 모현의 어르신들의 눈에도 이슬처럼 내려앉고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서 그래도 행복하다는 할머니들의 마음을 그대로 안을 수 있었다.

3개월의 과정을 끝낸다고 하니 아쉬움이 많다.

서로 손을 잡고 안아주고 서로 마음 나누고 웃음 나누고 마음열기를 통해서 서로의 웃음을 알게 하는 과정이지만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더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던 친구. 안아주니 더 좋아하는 친구 시키지 않아도 앞에서 노래도 잘 부르던 장애우들도 할머니 앞이라 어리광 부리듯 다

가선 친구들. 모두가 그리워질 것이다. 복지관에서는 많은 시설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과도 연계해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망원 친구들이 다시 복지관에서 웃음을 나누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 시각 장애우들로 웃음치료를 통해서 더 멋진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복지사의 말씀으로 새로운 웃음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웃음은 나눌수록 행복을 만들어 준다.

내가 웃다보면 앞에서 아님 주위에서 웃어 가는 전염병 같아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한번 전염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정말 멋진 일이지 더 큰소리로 웃어야 한다.

소리쳐서 웃다 보면 자신 속에 쌓여 있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도 날려 버리는 것이 곧 웃음이기에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전 웃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웃음에 기대를 하게 된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날지 새로운 기대로 다시금 웃음 속에 파고들어 본다.

김순희 웃음치료사 문의: 018-222-1790

이한철 포천시 농업지원과장



김순희 웃음치료사 문의: 018-222-1790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10일 ~ 12월 1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 2008.12.10 포천신문 제433호 발행
- 2008.12.20 포천신문 제434호 발행
- 2008.12.31 포천신문 제435호 발행예정

취재기자 모집

소신있고 성실한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031-542-1507